

日 NTT, 電話番號안내 有料化와 검색용 無料 端末機 제공결정

NTT는 전화번호안내서비스(104번)의 유료화에 맞추어, 전화번호를 자유로이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초기의 보급은 희망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20만~30만대씩 제공하게 된다. 또한 PC 등을 이용해서도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래에 일반가정에 1,400만대 정도 보급이 예상되고 있는 가정용 게임기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NTT는 현재 번호안내계(오퍼레이터)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안내서비스 1건당 30엔, 단말기이용검색 10엔 등 유료화 계획을 세워 12월에 우정성에 신청하게 된다. 이후 내년 10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단말보급도 동시에 시작한다.

이 단말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사업소의 전화회선을 통해 24시간동안 약 5,000만건에 달하는 NTT의 전화번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가입자에게만 무료제공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때문에,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무료로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즉, PC등의 뉴미디어기기로도 번호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로이 접속,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국내에 약 30만대정도 보급되어 있는 통신기능을 가진 PC나 10만대 정도인 CAPTAIN(문자도형정보네트워크)시스템 단말과도 접속이 가능케 한다.

NTT 분할논의와도 관련하여, 전기통신심의회나 총무청은 NTT에 대해 대폭적인 합리화와 이에 따른 이익을 요금인하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환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NTT에는 약 23,000명의 오퍼레이터가 있으며, 설비, 인건비등 안내서비스에 연간 약 2,350억엔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NTT는 데이터단말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직접검색하게 되면, 안내서비스경비가 절감되고 그 만큼을 요금인하 재원으로 돌릴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말기의 무료 제공은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부당요금판매'에 해당될 우려도 있으나, 기능을 번호검색에 한정하면, 유사상품이 없으므로 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초기 2, 3년간은 연간 20만~30만대를 시험적으로 보급하고, 이후 행정당국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민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와같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희

귀한 일이다.

☐☐

■ TI 89 JP 3110 ■

日本, 放送衛星(BS) 關連機器 판매 급상승

日本은 방송위성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위성(BS) 관련기기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BS 관련기기의 판매가 최근 급증하기 시작하여 9월이후 매출부터 그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 10월에는 9월의 1.5배의 출하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비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11, 12월에도 VA(Audio-Visual)기기의 최성기를 맞이하여,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전망이다. 특히, 현행의 TV의 대형화면선호현상을 반영하여 BS 채널내장 TV가 크게 신장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보였던 내장 VTR도, 이와같은 추세와 함께 급상승하고 있다.

금년의 BS 기기의 일본국내출하는 전반기의 6월까지의 예상외로 저조한 추세인 듯하여, 1~9월의 누계출하의 경우 BS 안테나는 5천백대를 보였으나, 6월이후 BS 프로그램의 대폭확충 및 8월부터의 BS 수신유료화를 수반한 告知效果등으로 인해 BS 기기의 국내출하는 서서히 향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 RA 89 JP 3008 ■

프랑스 프레보 보고서, 郵電省의 郵電分離를 권고

— 우전사업의 경영형태 검토작업을 시작 —

프랑스의 우전·우주장관은 1988년 12월, 산업계, 소비자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우편, 전기통신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컨설턴트인 유벨 프레보氏에 위탁했다.

프레보氏는 예정일인 7월 14일보다 1달가량 늦은 8월말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권고내용중 중요한 것은 우편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을 분리, 독립된 법인체로 하며, 직원의 권리를 보증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전·우주성의 우편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을 분리하여 그 각각에 대해 공법에 의한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